

지역학 연구와 병행해야 할 서반아어문학 교육

김 춘 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1. 스페인어권의 과거와 미래

스페인어가 스페인과 중남미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를 면밀하게 주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스페인어권 문화는 엄격한 의미의 서구문화와는 다르다. 유럽 근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얼마간 소외된 변방이었다. 그러나 15세기에 이미 유럽 최초의 근대적 통일 국가를 이루었고, 그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바탕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서구 문명을 진출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을 만큼 스페인이 서구 역사의 일부로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한때 8세기 동안이나 아랍 지배하에 놓이면서 유럽의 아랍 문화 전수의 전진 기지 역할을 했는가 하면, 지중해에서 터키와 패권

을 다투며 회교세력의 유럽 진출을 방어하기도 했다. 유럽의 중추적 세력으로 기독교 수호의 사명을 다한 것은 16세기 이후 신성로마제국을 거느린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였다. 또한 합스부르크 왕조는 종교개혁운동으로부터 카톨릭을 수호하는 역사적 역할을 떠맡아야 했다. 그리하여 카톨릭 수호라는 국가적 이념을 위해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로 인한 국력 소모로 새롭게 부상한 해상 세력 영국에 의해 무적함대가 무너져야 했고, 마침내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제국의 해체를 맞게 되었다.

스페인의 역사적 뿌리는 유럽 대륙보다도 아메리카 대륙에 더 넓고 깊게 심어졌다. 서인도 항로를 찾으려는 콜롬부스를 지원하여 신대륙과 만나는 데 성공한 스페인은 이후 16세기와 17세기에 걸친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 경영을 통해 정복자인 동시에 기독교 복음의 전파자로

군림했다. 그 식민제국의 뿌리는 오늘날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미국의 남부 대부분을 포함한 남아메리카 대륙에 뻗어내려졌다. 이 광대한 스페인어권 아메리카를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중남미로 지칭하지만 실제 명칭은 여러 가지다. 또한 라틴아메리카(Latinamerica) 이베로아메리카(Iberoamerica) 또는 스페인 아메리카(Hispanic America)와 같은 각각의 명칭들은 나름대로 역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를 지닌다. 스페인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정복사의 주인으로 지금도 문화적 종주국임을 자처하는 스페인인들이 쓰는 명칭이다. 반면에 라틴아메리카가 로마의 영광을 누린 이태리인들이 선호하는 명칭이라면, 이베로아메리카는 이베리아 반도의 또다른 주인인 포르투갈인들이 선호하는 명칭이다. 실제로 중남미에서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는 브라질뿐이지만, 브라질의 위세에 비길 나라도 없는 만큼 아메리카를 자신의 역사적 품 안에 넣으려는 포르투갈의 야심도 전혀 근거없는 것만은 아니다. 스페인 식민제국을 이끈 펠리페 2세는 1580년 포르투갈을 복속시켰으나, 60년만에 포르투갈은 다시 스페인에서 이탈해나갔다. 어느 역사가의 말대로 펠리페 2세의 가장 큰 실정 중의 하나는 스페인의 수도를 리스본으로 하지 않고, 아무런 전략적 가치나 지리적 고려가 없이 마드리드를 수도로 한 것이었다고 지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스페인어권은 다른 세계에 비해 정치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쇠퇴의 징후는 아니다. 오랜 역사적 전통으로 확고하게 자리잡혀진 스페인어권이라는 하나의 문화적 단위는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성장해가고 있다. 미래의 번영을 꿈꾸기에는 아직 요원하지만, 그 번영의 날이 언젠가 도래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최근 미국 학계에 나온 한 논문에 의하면, 미국에서 스페인계 인구는 미국독립 300주년을 맞는 2075년 무렵

현재의 2,500만 명의 두 배 이상으로 신장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흑인과 함께 미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스페인계 세력의 비중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것은 언젠가 미국 사회의 중심 세력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며, 그 중심 세력 중의 하나가 스페인계 미국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그것은 스페인어권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인 것이다.

2. 스페인어 교육 현실

스페인어는 아직 낮은 외국어에 속한다.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언어의 효용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스페인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고등학교 제2외국어 과목 중의 하나이며 일부 대학에서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어나 프랑스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국어이다. 국제사회에서 스페인어권이 차지하는 정치경제적 비중이 낮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문제는 스페인어의 교육이 다른 외국어 교육보다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어 교육의 실질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이루어졌는가이다. 바꾸어 말하면 스페인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말이다. 스페인어의 중요성을 정확한 수치로 계량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유엔의 5개 공용어 중의 하나이며 흔히 말하는 경제언어로 세계에서 여섯번째라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서반아어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55년 한국외국어대학에 서반아어 학과가 개설되면서부터였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19세기 말에 대학에서 스페인어 전공교육을 실행했

다. 대학에서 전공교육으로 실시된 지 반세기 만에 국내 대학 중 스페인어과 또는 서어서문학과를 개설한 곳은 모두 13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70년대와 80년대에 해외 수출 시장의 다변화라는 국가 정책 목표와 엮물려 서울대를 비롯한 상당수의 대학교에서 서반아어 전공 학과를 설치했다. 전공으로 서반아어를 개설한 대학 외에도 다수의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제2외국어 교양과목으로 개설해 놓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고 있는 곳도 20여 개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스페인어의 교육이 일정한 터전을 마련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의 수준만으로는 부족하다. 스페인어 교육의 사회적 수요가 아직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현재의 직접적 수요는 적다 하더라도 미래의 잠재적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스페인어 교육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정치 경제적으로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낙후성이 항구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스페인어권의 잠재력은 상당하다. 이를테면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에서 스페인어는 가장 수요가 큰 외국어 중의 하나이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 수로는 스페인을 포함해 중남미 22개국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광범위하고 그 인구 수는 4억에 이른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언어권의 범위는 가히 세계적이라 할 만큼 광범위한 것이다. 게다가 스페인어권이 우리 경제와 맺고 있는 인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산업 중심 지역은 물론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와 같은 소외지역에도 수십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3. 스페인어문학 교육의 방향과 목표

현재의 서반아어 교육은 언어 중심 교육에 머무르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물론 대학교육에서도 서반아어 교육은 서반아어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일부 대학들의 서어서문학과는 종래의 전통있는 외국어문학과들의 예를 따라 어학 및 문학의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문학보다는 스페인어 자체의 언어 교육 확산이 주요한 과제가 되어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대부분의 신생 스페인어학과들이 서어서문학과보다 서반아어학과로 이름을 택하고 각 대학에서 문과대학보다 외국어대학에 분리 소속시키는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스페인어를 전공한다면 기초적으로 스페인어의 습득이 우선임은 물론이다. 스페인어의 이해라는 기초 능력 없이 학문을 진전시킬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학 4년의 교육을 마친 뒤에도 스페인어의 숙달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숙달은 커녕 남보다 게을리 보낸 학생들은 스페인어 몇 귀절을 기억하는 것으로 자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전공 교육의 황폐화는 소홀하기 그지 없는 스페인어의 습득과정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 양자에 모두 문제가 있다. 공급하는 쪽의 교육 프로그램이 비현실적이므로 스페인어 습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 외국어대와 같은 특수한 대학을 제외하고는 교과과정이 어학 또는 문학 중심의 이론 교육으로 채워져 있다. 듣고 말하는 훈련과정은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수요자측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어학이란 꾸준한 반복 훈련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것인데 개인적 노력을 게을리하는 한, 강의에만 의존해서는 별다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물론 수요자에게 일방적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다. 학생들이 스페인어를 공부할 필요성을 느낄 만큼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한, 단순히 학과에 입학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페인어 습득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다수의 학생들은 졸업후 전공교육과는 상관없는 분야로 진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국제적 상황이 변해 중남미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스페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어차피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시적 투자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면, 현재의 사용 빈도가 낮고 효용 가치가 적은 스페인어의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잠재적 수요를 위한 투자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스페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페인어 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반아어 교육이 어학 교육에 치중하게 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영어, 불어, 독어 등 우리에게 익숙해 있던 외국어들의 교육 목표는 그들의 학문적 전통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이었다. 이들 외국어는 고전 희랍어, 라틴어와 함께 서구의 사유전통과 문명을 이루어 온 중추적 문화권의 언어였다. 따라서 현대의 사상, 과학,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이해하는데 이들 언어는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져 온 것이다. 반면에 스페인어는 그러한 학문적 전통에서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 스페인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학문 영역의 깊이와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중이 두어져야 할 것은 스페인이 물려준 학문 전통이나 유산이 아니라 스페인어권이라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비록 학문적 성취나 발전에 기여한 바는 적지만 그 문화적 역량이나 비중은 간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은 전문적 기능인력의 양성이라는

단순한 직업교육의 과정은 아니다. 기능교육과 함께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교양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스페인어 전공교육도 단순한 언어 습득 차원을 넘어 언어를 통한 교양교육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외국 언어의 체험이 아니라 언어에 배어있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천 년 전통을 지닌 한 민족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양을 배양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와 사회와 이념이 언어교육을 통해 체험될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스페인어를 형성한 역사와 스페인어에 의해 창조된 문화를 두루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대학에서의 스페인어 교육의 명시적 목표는 어문학 전공이다. 스페인어의 언어학적 연구와 스페인어권 문학의 학문적 탐구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문적 욕구와 성취 동기를 가진 소수에 적용될 이러한 학문적 목표는 오늘날의 대중화된 대학의 현실에는 반드시 적합한 것 같지만은 않다. 실제로 최근의 대학교육의 개혁 방향은 점차 보편적 교양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전문 전공교육은 대학원 중심 교육으로 옮겨져가려는 추세이다. 물론 스페인어문학 전공교육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대학은 여전히 고급의 학문적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전문적 전공교육은 여전히 대학교육의 유효한 존재 이유 중의 하나이다. 다만 그러한 전문성과 보편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문의 실용화는 최근에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물질주의의 심화와 자본주의화 추세 속에 학문의 실용주의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어문학 교육도 인문학적 진흥보다 실용적인 지역학 연구의 관심이 일어

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증대해가는 지역연구의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다. 여러 대학에서 지역학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며, 서울대에 각 권역별 지역연구소는 물론 지역 종합 연구소가 설립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지역학의 관점에서 고려할 때 스페인어권의 연구 대상은 광범위하다. 비록 이 지역의 경제적 현실은 낙후되어 있을지언정 미래의 잠재적 가능성은 다른 어느 권역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갈수록 속도를 더해가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스페인어권이 우리에게 더욱 더 가깝게 다가올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스페인어의 국제성도 갈수록 높아져 갈 것이다. 이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스페인어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스페인어 교육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4. 스페인어문학 교육 정책의 방향과 전망

스페인어문학 교육도 일정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제화의 물결 속에 교육 개방이 촉진되고 교육도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져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교육은 다른 상품과 달리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질 수만은 없다. 때로는 경제적 원리보다 규범적 목표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스페인어 교육의 방향도 시류에 맞추어지기보다는 미래의 전망 속에 설정되어야 한다. 당장의 이해나 경제성보다 미래의 국가 발전이라는 거시적 틀 안에서 교육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스페인어 교육 정책은 시류에 따라 즉흥적으로 짜여졌다고 볼 수 있다. 수출입국을 목표로 중남미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1980년대 각 대학에 서반어 학과가 설치되었는가 하면 스페인어 교육이 정책

적으로 확대되었던 것이 그 예일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를 제2외국어로 택한 것도 같은 무렵의 정책적 배려에 의한 결과였다. 그러나 정책의 연속성은 유지되지 않았다. 잠시 관심을 끌던 스페인어 교육은 구 소련의 붕괴로 시작된 러시아와 중국어에 대한 관심 고조로 시들해졌고 정책적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현재의 정책적 인식부족이 지속되고 스페인어문학이 지금처럼 소외된 학문 영역으로 남아 있는 한, 타학문 영역과 비교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다. 미래의 수요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스페인어권의 문학이나 지역연구도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거시적 안목에서 이러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스페인어 어학 능력의 향상과 어문학 및 지역 연구를 고무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그것이 미래의 다원사회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우선 현재의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스페인어의 선택기회를 확대시키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몇몇 외국어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스페인어를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20여 개교에 불과하다. 고등학생들이 스페인어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몇몇 외국어 고등학교를 통해 스페인어를 전공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사정은 다르다. 어느 지역에서든 원하기만 하면 스페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만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은 대학의 외국어 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의 스페인어 교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학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어문학 연구 및 교육과 필요에 따라 지역 연구가 충실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스페인어문학 및 지역 연구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연구 집단이 형성되어야 한다. 스페인어문학이나 지역 연구가 지니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 연구 인력은 주로 대학 교원일 수밖에 없다. 별다른 연구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내에 일정한 규모의 연구 인력을 통해 학문 세대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12개 학과에 불과한 전공학과 규모는 수적으로 크게 부족하다. 적어도 30여 개 정도의 학과 규모에 이르러야 연구 성과를 기대할 만한 연구 집단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절한 인적 규모는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과 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데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현재의 스페인어문학 및 지역 연구의 여건은 열악하고도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그동안 스페인어문학의 전공교육과 연구의 역사도 일천하거나와 결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스페인어권의 세계적인 문학의 번역 소개가 이루어졌으며, 이 지역 문화의 이해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에는 현지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젊은 학위소지자들의 연구 열정이 높아가고 그만큼 질적 향상과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정치 경제 연구에도 관심이 높아져 이 방면의 지역연구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 인력이 연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기존의 제반 연구 여건이 여의치 못하다.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이들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연구 인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에 설치된 스페인중남미연구소가 지난 5년간 스페인어권 제국가들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지원활동을 벌여왔던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각 대학의 서반어어문학과 운용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획일적 교육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대학마다 고유한 교육 모델을 창조해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물론 서반어어문학과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서반어어와 그 교육 및 연구의 특수성은 더욱더 각각의 서반어어문학과들이 대학마다 특성을 갖도록 특화되고 차별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언어, 문학, 지역학 등 특정 분야를 특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스페인 연구에 중심을 둔다든가 중남미 현실 이해에 중심을 두는 등 교과과정상의 차별화도 가능할 것이다. 어쨌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서반어어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은 물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정책 당국자들이 다같이 노력을 경주할 때이다. ▣

김춘진/한국외국어대 서반어어과를 졸업하고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돈끼호테』: 모사와 모방의 의미』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